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2호 【루게 제25355호】 주제105 (2016)년 7월 30일 (토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영식 동지, 서홍찬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의 공장 직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공장을 문화성 있게 정말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앞을 내다보며 뚝이 크게 건설한 것이 알린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희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에 따라 인민군대에서 평양시교외에 새로 건설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은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어구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대단히 큰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이다.

지난해 3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국의 수산부문들에서 요구하는 어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자면 공장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



그물생산공정, 바늘생산공정, 때생산공정 등 모든 작업장들마다에서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의 기본생산수단인 질 좋은 그물과 바늘, 때를 생산하고 있는데 정말 흐뭇하고 볼만 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원료의 국산화비율을 최대한 높이며 원단위 소비기준을 극력 낮출데 대한 문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들을 운영하고 능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활동에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

전에 비해 생산면적은 5배, 생산능력은 8배나 더 큰 새로운 어구종합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리전도 동소잡아주시였으며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편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건축면적이 1만 8,650여㎡에 달하는 현대적인 어구종합공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섰으며 지금은 본격적인 생산을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두고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그들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초소, 수산전선의 병기창을 높은 생산성으로 굳건히 지켜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합조종실, 건본실, 그물작업반, 바늘작업반, 때작업반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실래,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 어구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망기, 천사기, 성형기 등을 그르히 갖추어놓은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계바다가 펼쳐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환경에 따르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방안까지 찾아낼수 있는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된 종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으며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만들어 설치해놓았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 어구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망기, 천사기, 성형기 등을 그르히 갖추어놓은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계바다가 펼쳐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환경에 따르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방안까지 찾아낼수 있는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된 종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으며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만들어 설치해놓았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 어구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망기, 천사기, 성형기 등을 그르히 갖추어놓은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계바다가 펼쳐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환경에 따르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방안까지 찾아낼수 있는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된 종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으며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만들어 설치해놓았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 어구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망기, 천사기, 성형기 등을 그르히 갖추어놓은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계바다가 펼쳐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환경에 따르는 가장 합리적인 생산방안까지 찾아낼수 있는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된 종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으며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만들어 설치해놓았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시

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는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은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어구종합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훌륭히 건설할수 있는것은 당에서 준 파업은 오직 즉시 접수하고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라고 치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에서 전문수산업자들은 물론 심과 해안연선에 주둔하고있는 구분대들의 수산부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어구들을 마음먹은대로 뿔뿔 생산하여 충분히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보배공장,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 큰 밀천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좋은 일도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도대들이 하나하나 쌓아지는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앞으로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탁에 문고기가 풍족하게 오르는 그날 어구종합공장을 건설하던 나날을 긍지높이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규모가 큰 종합적인 어구생산

기지를 일떠세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오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공장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황금해력사창조에 적극 이바지해갈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 70돐기념

## 중 앙 보 고 회 진 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사항을 위한 총동원력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것은 오랜 세월 온갖 정치적투쟁과 사회적투쟁속에서 살아온 우리 여성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거대한 정치적사건이었다.

남녀평등의 새시대가 펼쳐진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나라 전체 인민들은 여성들을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력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키워주시고 현성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보고회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여성 존중, 여성중시의 사상과 정치로 여성들을 혁명의 한복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장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과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나라의 꽃, 시대의 꽃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이며 조국의 강성번영과 사회주의대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랑과 정을 바쳐가는 우리 여성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설레이고있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사인 조선로동당 만세!》,《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뉘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가자!》,《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여성혁명가가 되자!》라는 구호들이 나뉘어있었다.

보고회에는 최룡해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정순 녀평등중앙위원회 위원장, 성, 중앙

기관, 평양시안의 여성일군들, 영웅, 길전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조선녀성의 기상을 힘있게 펼쳐나가자》를 하였다.

보고회는 주제적조선녀성운동의 개척자

이시고 탁월한 영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무위에 입신단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한 장엄한 용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와 전위적위력을 힘있게 펼쳐갈 참가자들의 불타는 열기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시수하리라》노래 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사설

# 조선여성들의 애국충정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7월 30일은 조선여성들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뜻깊은 날이다. 오늘 곁에는 만리마사대의 여성혁명가 조영달씨는 우리 여성들의 값높은 삶과 여성존중의 가치를 민족사적대경사였으며 인류문명사적대경사였으며 정치사적대경사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70년전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혁명적변혁을 가져온 민족사적대경사였으며 인류문명사적대경사였으며 정치사적대경사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70년전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혁명적변혁을 가져온 민족사적대경사였으며 인류문명사적대경사였으며 정치사적대경사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이 창조된 긍지들은 력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특출한 여성운동사상과 정력적인 영도, 어머니사랑과 하늘같은 은덕으로 우리 여성들을 력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조선녀성운동의 력사적투쟁과 온갖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혁명적영도를 받들어온 우리 여성들은 눈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70년전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혁명적변혁을 가져온 민족사적대경사였으며 인류문명사적대경사였으며 정치사적대경사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것을 기념하여 오나날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은 바로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누리는 조선녀성의 값높은 삶

역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 우리도 황금해의 주인들이다

남포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를 찾아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시대 우리 녀성들의 혁명적이고 고상한 사상적정신적품위와 투쟁기풍, 생활기풍은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높이 발휘되고있습니다.》

크기의 모양이 엇비슷한 새들이 남포수산사업소의 부두가를 딱 제우고있었지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를 우리는 인자 알아볼수 있었다. 누구나 위아 눈길을 떼지 못하는 자랑스러운 그 이름이 빌리시도 유포하게 하는데 인자였던것이다. 청년녀성들을 만나기 위해 갈관우에 오르는 우리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처녀가 맞이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배의 선장입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남바다를 정복해나가는 청년녀성공포대 대한 표상을 사나운 파도에 단련되어 남바다를 정복할 결심한 열혈에 익은 딸을 가진 단단한 몸매였기라고 그러보았던 우리의 생각이 빛나있었던것이다.

배에서는 정비가 한창이었는데 선원들모두가 하나같이 환한 얼굴에 아름다운 처녀들이었다. 그들과 맞닿아 이르러가자 배의 크고작은 모든 설비의 상태들이 구조적으로 기뻐워워 설비들이 하나하나 정비를 관저게

그날 사업소에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가 데어나게 된 사연과 첫 선장이었던 김명숙영웅을 비롯한 청년녀성공포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언뜻 언뜻 그들 얼굴에 비친 미소가 눈앞에 그려져 있었다. 《나쁜 쪽이 어찌 되었습니까.》

한편 육동무는 우리에게 1960년대 초 녀성호(당시)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전으로 연간 물고기잡이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그리고 황해남도바다에서 뜻밖에 조난당하여 직함선들의 포위속에 온 고기배를 결사적으로 구원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상에 대하여 감히 넘쳐 말하였다.

주제 51(1962)년 2월 전국수산부령정제대회의 연단에서 나온 청년녀성공포대의 도문을 주의 깊게 들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작 작하셨고 높이 평가하시어 이런 동무들이 바로 당의 참된 딸들이고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배이름을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로 명명해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우리 녀성들에게 당의 딸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바닷바다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김명숙영웅을 비롯한 청년녀성공포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나라였던 그 세월 바다녀성들의 운명은 파연 어찌했는가. 가정을 먹여살리기 위해 그들 멧개기를 차고 걸고있는 바다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녀성들, 물리신으로까지 불리우며 사공치는 바다물속에 운명을 맡겨야 했던 해녀들이었다. 바로 해녀들의 구슬땀 노력이 울려 퍼졌던 그 바다에서 우리 녀성들이 당당한 정복자로 서게 된 것은 그들 앞을 가로막은 우리 녀성들의 값높은 삶과 그 눈부신 투쟁이 크지 않은 갈관우에 새겨져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가슴속으로 감동할수 없었다.

바로 그 사랑과 투쟁의 열매는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있다. 청년녀성들의 가슴마다에는 지난날 제2차 전국청년비룡선구자대회에 불려주시어 영웅의 기쁨을 안고 뛰어들었던 청년녀성들의 투쟁이 새겨져있고,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배이름을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로 명명해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이 세상이 끝까지 가고가리라

정현구역도시건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 조경숙동무가 같은 당세포에서 일하고있던 20여명의 가두녀성들과 함께 작업반을 꾸어가지고 구역도시건설관리소도관련위원회로 진출한지도 벌써 10여년 세월이 흘렀다. 언제나 작업반원들과 온갖

추위와 무더위를 이겨내며 하루같이 도로관리에 지성을 바쳐온 조경숙동무는 지방투쟁기관 대의원으로, 오늘날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났다. 그의 집에는 영웅의 대외활동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

고 찍은 기념사진들이 모여 있었다. 하기에 조경숙동무와 작업반원들은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자신들의 목숨은 인성질을 충성의 비단으로 수놓아가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걸음 끝까지 가고갈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에서였다. 나라의 정사를 본하는 인민의 대표! 그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열정인 김명숙동무는 알곡증상을 위해 남먼저 새벽문을 열곤 하며 말이 짧도록 뛰고 또 뛰었다.

주제 101(2012)년 1월에는 만경대남세전농장가면 인민들과 농장원들로부터 우리 대의원으로 다정히 불리우는 한 녀성이었다. 그가 바로 평범한 군인가정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계승상업대학을 졸업하고 관리위원장으로 사임하고있는 김명숙동무이다. 김명숙동무가 나이 많수족머뭇한 가는 당의 사랑과 믿음속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처음 선지된것은 주제 87(1998)년에 진행된

### 한생을 교단에 바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에서는 온 나라 교육자들과 관공들의 투쟁을 세기까지 한 녀성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가 바로 어머니의 뒤를 이어 33년간을 교단에서 일하고있는 영예의 김일성종합대학 수석부교수인 주재경이다. 그의 교육사업경험은 온 나라 교육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철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미더운 녀성들!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서의 영웅적투쟁의 모습



선교구역 장충초급중학교에서의 수업 모습



국가과학원 중앙비섯연구소에서의 연구 모습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남포수산사업소 부두가에서 만난 우리는 수필 《봉선화》와 《준마치녀》를 소개했다.

구내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8월 공장을 찾아오는 김명숙동무의 사랑을 전하는것만 같아 위아 전신을 움직여주는 우리들 공장원들이 한 녀성조사공포대도 이끌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기까지 만나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김명숙동무입니다.》

20대 꽃나이에 김일성정년 영예상수장으로, 조선로동당 대의원으로 다가는 로명숙동무, 그와 오늘날은 우리 인민 누구나 한생도록 안고 사는 마음속으로까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처녀인가.

이미도 어떤 총적적인 사실이나 가슴적인 회일에 접하며 그와 상반되던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는것이 인간심리인것같다. 이 세상의 행복을 다 독차지한듯싶은 그를 부러움에 바라보는 우리의 머릿속에 문

《준마치녀》의 노래소리가 나의 귀전에 울려왔다. 얼마나 좋은 제도에서 사는 우리 녀성들이냐. 조사공포대원들이 부르는 《준마치녀》노래를 들은 우리는 눈앞에는 거연히 서있는 천리마상상이 떠올랐다. 이 땅에서 일어나기 위한 전선의 새 력사, 위대한 창조자의 새시대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있는 그 기념비에 남포수산사업소의 나란히 천리마를 타고 있는 녀성들의 모습은 우리 녀성들의 존엄과 행복의 삶의 극적인 표현으로 대대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우리의 민리미숙도 내달리 는 조국의 투쟁이 승리한 그대 에 가서 아마도 이 땅에 달려다 통상을 높이 세우던 거기에 김명숙동무와 같은 조선녀성의 존엄성은 모습에 또다시 시대의 주인공의 군상을 떠오르리라 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지금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서 7월호에 3년분인경제적 생활을 원수인 김명숙동무의 뒤를 이어 박인주, 립향동무들을 비롯한 수십명의 3년분, 2년분, 년간인경제적 생활원수자들이 배출되고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혁신자의 영예를 계속 펼쳐갈것이다.

《준마치녀》의 노래를 부르면서, 《봉선화》의 노래를 잊지 않으면서, **본사기자 리신향**

### 알곡증상에 바쳐가는 녀성박사의 애국충정

신천기술대학 교원 박사 구정란동무

물에 유려한 미생물을 증식시킨다. 또한 질소가 가지고있는 면적외선을 복사시키는 성질로 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영향을 주고 물을 소분자로 만들어 영양분들을 잘 흡수할수 있게 해준다.

군인의 머리 협동농장들에서 비료를 몇년간 받아들이고본래의 비료보다 2배정도 더 생산하게 되었고, 강병을 비롯 한 알곡수출을 전년보다 15%이상 늘일수 있게 해준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

정말이 현실이 아닌 나날이었다. 교육사업을 정념으로 하는 교육자이던 한가구의 주부인 그녀에게 질서에 대한 연구를 맡긴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의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길이여 스스로 알아안은 인생의 아름다운 속제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집사람의 허약한 시혈 포진을 꾸러놓고 질서연구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로서의 필요 분석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을 찾아 그녀 젊은 열정은 얼마이며 연약한 두 어깨로 저나를 질서는 또 얼마나 버틸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가 믿고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과학이 없이는 나라의 미래를 밝게 물들고있었다.

우리 녀성들의 운명을 주적으로 개변시킨 70년력사로 황금해와 더불어 그 노을속에 비껴오느라 고생했다.

**본사기자 신현규**

###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신명영 6.15공통선언실현 해 외추진위원회 미국지역 위원회 위원장

석명은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조은혜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 의회본부 위원장

리현정 해외리판드동포협력회 부위원장

전순영 새군나조선인민협회 회장

한춘희 국제대외연맹 전 총재 최후퇴선인사 위원장

손형근 《대한민국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장

남승우 제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삼 새미포전국연합회 회장

오인동 6.15공통선언실현 해 외추진위원회 미국지역 위원회 사무위원회 공동위원장

류성룡 중국 조선총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김경갑 중국 삼양조선총련의회 회장

김정숙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1부위원장 겸 로씨야 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김영은 로씨야과학원 국공연 연구소 상임연구원

리지숙 해외리판드동포협력회 회장

김수애 새군나조선인민협회 회장

정향화 6.15공통선언실현 해 외추진위원회 캐나다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기에 준비위원회는 14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해외준비위원회에는 편석회의준비를 위한 실무사업을 맡아하는 사무국이 조직되었다.

사무국장 김은실

조선총 6.15공통선언실현 해 외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은실

한승수 제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공명위원장 장진민

6.15공통선언실현 해 외추진위원회 오세안주 지역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 스위스외무성 협조사수소 대표 국경선에 즈음하여

국경선에 즈음하여 토마스 피슬러 주 스위스외무성 협조사수소 대표가 2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공식적 외무성 부

### 다음주에 진행될 청소년선수권대회 경기들

다음주에 진행될 청소년선수권대회 경기들

여자경기가 열린민체육공원 지상호에이장서 벌어진다.

양강도초경기장서 사신속 경기장에서 1일부터 특상경기 진행되며 청춘거리 수영

### 국경선에 즈음하여 토마스 피슬러 주 스위스외무성 협조사수소 대표가 2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공식적 외무성 부

연회에는 공식적 외무성 부

### 국경선에 즈음하여 토마스 피슬러 주 스위스외무성 협조사수소 대표가 2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공식적 외무성 부



# 재난의 화근 미제침략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 랭대와 수모만 당한 구걸행각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협정철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이 이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침략군에게 무제한 특권을 주고 자기들에게는 끝종파 지류, 특혜를 주는 불평등을 강요하는 《행정협정》의 철폐를 주장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은 미국의 군사적정권을 필적으로 허용해주는 침략군사인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는 치욕의 문신이다.

《행정협정》의 모체는 지난 조선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2일 미제사실장관 맥아더와 리승만미국사이에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대한 미군군대의 관할하에 관한 협정(4대협정)》이다. 당시 미제는 전사하는 특수한 상황을 밋고 협정문에 피의당국이 미군법령에 대해 일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조야 박았다. 미제침략군은 이 남장도적인 협정을 통해 전쟁기간은 물론 전후에도 남조선에서 갖은 야수적탄압을 가리였음이 갈림해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어한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그에 의하면 미군법령에 대한 수사권, 구속권, 재판권은 미군측이 행사하게 되어있다. 《공무집행중》에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구속도 수사도 할수 없으며 처벌권한은 더욱 없다. 《이공무중》에 감행된 미군법령에 대해 서한 남조선당국이 형사상 1차적재판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공무중》에 의해 포괄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범죄가 《공무집행중》에 범어진것인가, 《이공무중》에 범어진것인가도 미군측이 판단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이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협정들보다 미군법령을 명정없이 제로로 속환할수 있는 미군법령에 지역안에서도 범죄행위의 목적으로 미군의 동의없이 무고압박과 구공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조야박해있었다와 너무나도 대조되는것이다. 이처럼 《행정협정》의 때 조항에는 상연의 오만성과 주구의 예속성이 그대로 비껴있다.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은 식민지남조선의 실체를 세계앞에 더욱 날카로 드러내놓았다.

물개배반 피의통치자들이 서슴없이 도장을 누른 이 불평등한 《행정협정》때문에 남조선전쟁 미제침략군의 치명적인 범죄행위들이 특권조항에 의해 미제침략군에게 유죄판결을 면하게 되었다. 남조선전쟁 후 해이될수 없었던 미군법령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의당국이 《1차적재판권》을 행사한다는 불과 일미 피지 않는다는 하나의 사실판고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어떤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그에 의하면 미군법령에 대한 수사권, 구속권, 재판권은 미군측이 행사하게 되어있다. 《공무집행중》에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구속도 수사도 할수 없으며 처벌권한은 더욱 없다. 《이공무중》에 감행된 미군법령에 대해 서한 남조선당국이 형사상 1차적재판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공무중》에 의해 포괄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범죄가 《공무집행중》에 범어진것인가, 《이공무중》에 범어진것인가도 미군측이 판단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이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협정들보다 미군법령을 명정없이 제로로 속환할수 있는 미군법령에 지역안에서도 범죄행위의 목적으로 미군의 동의없이 무고압박과 구공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조야박해있었다와 너무나도 대조되는것이다. 이처럼 《행정협정》의 때 조항에는 상연의 오만성과 주구의 예속성이 그대로 비껴있다.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은 식민지남조선의 실체를 세계앞에 더욱 날카로 드러내놓았다.

물개배반 피의통치자들이 서슴없이 도장을 누른 이 불평등한 《행정협정》때문에 남조선전쟁 미제침략군의 치명적인 범죄행위들이 특권조항에 의해 미제침략군에게 유죄판결을 면하게 되었다. 남조선전쟁 후 해이될수 없었던 미군법령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의당국이 《1차적재판권》을 행사한다는 불과 일미 피지 않는다는 하나의 사실판고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어떤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그에 의하면 미군법령에 대한 수사권, 구속권, 재판권은 미군측이 행사하게 되어있다. 《공무집행중》에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구속도 수사도 할수 없으며 처벌권한은 더욱 없다. 《이공무중》에 감행된 미군법령에 대해 서한 남조선당국이 형사상 1차적재판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공무중》에 의해 포괄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범죄가 《공무집행중》에 범어진것인가, 《이공무중》에 범어진것인가도 미군측이 판단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이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협정들보다 미군법령을 명정없이 제로로 속환할수 있는 미군법령에 지역안에서도 범죄행위의 목적으로 미군의 동의없이 무고압박과 구공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조야박해있었다와 너무나도 대조되는것이다. 이처럼 《행정협정》의 때 조항에는 상연의 오만성과 주구의 예속성이 그대로 비껴있다.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은 식민지남조선의 실체를 세계앞에 더욱 날카로 드러내놓았다.

물개배반 피의통치자들이 서슴없이 도장을 누른 이 불평등한 《행정협정》때문에 남조선전쟁 미제침략군의 치명적인 범죄행위들이 특권조항에 의해 미제침략군에게 유죄판결을 면하게 되었다. 남조선전쟁 후 해이될수 없었던 미군법령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의당국이 《1차적재판권》을 행사한다는 불과 일미 피지 않는다는 하나의 사실판고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21일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로 구성된 성주군(씨드)배치지자주쟁취위원회가 서울에서 피의당국의 《씨드》배치지들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밤을달려 8시간을 타고 서울에 집결한 200여명의 단체성원들은 평화로 의미하는 상징물을 가슴에 달고 서울역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씨드》배치지 철폐를 요구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씨드》가 성주군에 반한 나라나지도 않고 사실판고도 없이 핵상우에서 단 며칠만에 일방적

21일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로 구성된 성주군(씨드)배치지자주쟁취위원회가 서울에서 피의당국의 《씨드》배치지들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밤을달려 8시간을 타고 서울에 집결한 200여명의 단체성원들은 평화로 의미하는 상징물을 가슴에 달고 서울역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씨드》배치지 철폐를 요구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씨드》가 성주군에 반한 나라나지도 않고 사실판고도 없이 핵상우에서 단 며칠만에 일방적

21일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로 구성된 성주군(씨드)배치지자주쟁취위원회가 서울에서 피의당국의 《씨드》배치지들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밤을달려 8시간을 타고 서울에 집결한 200여명의 단체성원들은 평화로 의미하는 상징물을 가슴에 달고 서울역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씨드》배치지 철폐를 요구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씨드》가 성주군에 반한 나라나지도 않고 사실판고도 없이 핵상우에서 단 며칠만에 일방적

21일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로 구성된 성주군(씨드)배치지자주쟁취위원회가 서울에서 피의당국의 《씨드》배치지들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밤을달려 8시간을 타고 서울에 집결한 200여명의 단체성원들은 평화로 의미하는 상징물을 가슴에 달고 서울역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씨드》배치지 철폐를 요구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씨드》가 성주군에 반한 나라나지도 않고 사실판고도 없이 핵상우에서 단 며칠만에 일방적

## 통할수 없는 여론기만과 폭압소동

남조선에서 피의당국에게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 판이한 두 현실에서 사는 여성들의 운명

남조선에서 피의당국에게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피의당국에게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 여성천시가 빛어낸 비극

남조선에서 피의당국에게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피의당국에게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 여성천시가 빛어낸 비극

남조선에서 피의당국에게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피의당국에게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

## 여성천시가 빛어낸 비극

남조선에서 피의당국에게 반미기운이 날로 거세어져자 민심과 여론을 거대한 목적달에 피의들을 사육하여 무기한 반미 반미 《주둔지위협정》으로 불리우는 남조선미군(행정협정)이다.

남조선전쟁 미군의 《행사관할권》문제, 《보조지, 시설사용》문제, 《형사관할권》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정한 《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침략군에게 치외법관적특권을 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행사관할권》조항은 미제침략군에게 전례없는 특권을 부